

소공동체모임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0년 4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www.cathms.or.kr

- 03 소공동체 기도
소공동체 살림살이
- 04 복음 나누기 7단계
- 05 복음 나누기 7단계 자체 평가 방안
- 06 주일복음묵상 |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봉곡동 본당 주임)
- 10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 살림을 맡은 종의 비유
- 13 가정기도 |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
- 16 소공동체 배우기 | 복음 나누기 7단계
- 18 함께하는 소공동체 | 오돌녀 세라피나(신안동 본당, 2구역 8반 서기)
기도부대 할머니들의 힘
- 20 순교자를 찾아서 | 김길수 요한
김시우(金時佑·알렉시오 1782~1815)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과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살림살이

주간	활동예정사항	나눔사항
예수부활 대축일		
부활 제2주간		
부활 제3주간		
부활 제4주간		

복음 나누기 7단계

1. 시작성가

2.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3. 복음 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4.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복음 나누기 7단계 자체 평가 방안

- 1단계** - 기도의 정신이 있었습니까?
-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까?
- 2단계** - 성경의 본문을 읽기 전 참석자들이 모두 성경 구절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 성경을 기도하듯이 천천히 잘 읽고, 말씀을 경청하였습니까?
- 3단계** - 성경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치는 사이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 단어나 구절을 소리 내어 기도하듯이 읽었습니까?
-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여 읽었습니까?
- 4단계** - 침묵의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는 않았습니까?
-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머물렀습니까?
- 5단계** - 진솔한 개인적인 나눔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나눔이 다른 이들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었습니까?
한 사람이 너무 길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 해석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 6단계** - 성령께서 우리의 활동에 관한 토론을 이끄시도록 했습니까?
참석자들이 충분히 말할 기회를 가졌습니까?
지난 주 활동보고와 앞으로의 활동에 관하여 논의했습니까?
- 7단계** -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까?

4월 4일 예수 부활 대축일

요한 20,1-9.

사랑 - 참 생명의 길

어떤 젊은이가 현자로부터, 남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지 않으면서 세상의 악을 지워버릴 방법을 찾으라는 숙제를 받습니다. 젊은이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대개 나쁜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줌으로써 악을 지워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당연히 옳은 것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대체 세상의 악을 어떻게 지워나가야 하는가...

젊은이는 길을 가다가, 송아지 한 마리가 보리밭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보리를 온통 짓밟고 있고 사람들이 송아지를 쫓아내기 위해 말을 타고 보리밭 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송아지가 보리밭을 뛰쳐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말 타고 쫓아오니 놀라 다시 밭으로 뛰어 들어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젊은이는 사람들이 참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주인더러 자신의 송아지를 불러내게 하여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은 문득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잘못 다룬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악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똑같이 물리적 힘과 미움, 보복의 마음으로 악을 다스리고자 하는 **한심한 일**을 반복합니다. 악은 악으로 인해 불어납니다. 사람이 악한 짓을 책망하면 할수록 악은 더 퍼져갑니다. 악은 결코 악으로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에 대항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내 잘못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상대를 탓하기 보다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4월 11일 부활 2주일, 하느님 자비주일

요한 20, 19-31.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보지 않고는 못 믿은 사람이 토마스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지 그 전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보지 않고도 믿기를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토마스에게도 다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즉 보고 믿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 무엇보다 먼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도, 우리 주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너는.. 사랑하느냐?

‘뒷골목의 성자’라는 99년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주례 사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론을 합니다.

“오늘 같은 성인의 날을 맞으니 키티의 슬픈 사연이 떠오르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30년전 불쌍한 키티는 애처롭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그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어린 키티가 칼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봤습니다. 그 사이 살인자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악한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두려운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착한 이들의 무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주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계명을 안다 하면서, 스스로 선량하다 자부하면서, 이웃에 대해, 주위의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즉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사랑 실천을 한 가지라도 행하는 매일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4월 25일 부활 4주일

요한 10,27-30.

주님의 양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으나 몇 년 전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하는 ‘엽기 편파 방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나가는 방송은 아니고 그 홈팬들을 위한, 오로지 자기 팀만을 위해 경기장 내에서만 하는 방송, 그래서 공정함이라고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싸잡아 욕하고 헐뜯고 자기 팀에게는 좋은 말만 합니다. 그 경기장을 찾은 상대방 팬이 그 방송을 듣고 서로 싸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홈팬들에게는 통쾌하고 신나고 재밌는 방송입니다. 이유는 단하나, 바로 내가 좋아하고 성원하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부님의 강론집을 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양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자와 양떼라는 관계, 하느님과 그 백성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해도, 예수님의 양떼로서의 신원을 온전히 정립시키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말씀으로 ‘오해’를 합니다.

나는 자주 성경말씀을 가슴에 되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살림을 맡은 종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61번 '나는 주님 포도밭' 2,3절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저희가 사랑으로 서로 일치할 수 있게 하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 나라의 성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널부러진 주정뱅이



남의 돈에 눈이 벌건 노름꾼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



묵묵히 일하는 노인의 주름진 미소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24,45-51절을 읽어주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 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 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어떤 때 일상의 반복은 참기 힘든 단조로움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여기게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 탈출이라는 말은 언제나 약간의 설레임을 갖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데레사는 아침에 일어나 별 설레임 없이 옆 자리의 남편을 바라보고, 별 간절함 없이 기도상에 초를 밝히고 무릎을 꿇습니다. 별 감동 없이 주어진 기도를 마치고 숙제처럼 가족의 아침상을 차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개운하지 않은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불러오고 허겁지겁 출근해서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긴장 속에서 퇴근시간을 기다리며 일을 시작합니다. 새로울 것 없는 사람들과 새로울 것 없는 일을 처리하다 새로울 것 없는 가족들에게 돌아가 리모컨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다 잠들어버립니다.

이 새로울 것 없는 일상이 우리를 새로운 자극으로 부추깁니다. 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로운 맛집,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가구, 새로운 옷차림, 새로운 만남 ... 그러나 그 새로움은 결국은 건조한 일상의 다른 장면일 뿐임을 알고는 또 다른 새로움에 목말라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단조로운 듯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놓쳐버린다면 내일의 새로움은 한갓 허상일 뿐임을 알지 못합니다.

- 언제 일상의 내 생활을 외면하고 싶어집니까?
- 외면했을 때 내 기분은 어땠습니까?
-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마친 사람을 보았을 때, 내 느낌은 어땠습니까?
- 맡겨진 일을 충실히 마치고 주위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소중한 소임을 맡기셨습니다. 이 소임에는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 신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상을 통해 충실한 일꾼과 같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고 불충실한 일꾼과 같이 가족의 희생과 이웃을 희생을 요구하며 자신의 안위와 쾌락만을 쫓아 자신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웅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소중한 소임을 맡기셨습니다.

기타토의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1번 '한 많은 슬픔에' 를 부릅시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

가정에서 온 가족이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서 모여 앉습니다.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주세요.

† 시편 34, 14-15.

14 그네 혀는 악을, 네 입술은 거짓된 말을 조심하여라. 15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②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하는 거짓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③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다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

- 15위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간호사)
- 14위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학원광고)
- 13위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예요!” (스캔들 난 연예인)
- 12위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너만 알고 있어!” (친구)
- 11위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아파트 분양 광고)
- 10위 “옷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옷가게)
- 9위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음주운전자)
- 8위 “내가 너 만날 때는 안 그랬다!” (부모님)
- 7위 “이 문제 꼭 시험에 나온다!” (선생님)
- 6위 “이번이 마지막 구입 기회입니다!” (TV홈쇼핑)
- 5위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어르신)
- 4위 “이거 팔아도 남는 거 하나 없어요!” (장사꾼)
- 3위 “방금 막 출발했어요!” (중국집)
- 2위 “국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치인)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무엇일까요?

지난 2000년에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사랑해!”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도나도 사랑을 남발하는 세상, 그래서 더더욱 진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우리 사는 세상...

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생각 나누기

- ① 위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돌아가면서 발표해 봅시다.
- ② 나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언제인지 서로 대화를 나눠 보세요.

예) 힘들고 지칠 때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따스한 포옹을 나눌 때,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받았을 때, 속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눌 때 등

실천하기

진행자 다음의 내용을 다함께 살펴보세요.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中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한 사람 ...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의논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세요.

❖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 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세요.

❖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복음 나누기 7단계

복음 나누기의 목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소공동체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느님과 만나도록 도우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나눔을 통해 서로의 믿음이 심화되도록 격려하며 모임 안에 신뢰감을 키워 구성원들 간에 개인적인 유대를 심화시켜 영성적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 활동을 계획하도록 돕습니다.

2회에 걸쳐 복음 나누기 7단계 시작 전과 각 단계별 그리고 나누기 후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나누기 7단계 시작 전

① 성호경

성호경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내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가장 짧은 기도행위로 정성스럽게 하도록 합니다.

② 시작성가

시작성가는 너무 길게 또는 너무 짧게 하지 않고 적당히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③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출석확인은 성명과 본명을 함께 부르고, 다함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로 답례합니다.

위의 세 가지가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복음 나누기 7단계 단계별 내용

①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의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현존을 느끼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되도록 짧게 하도록 합니다. 너무 형식적인 기도는 피해야 하며 매번 기도하는 사람만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② 2단계 : 복음(성경본문)을 2번 읽는다.

“.....복음.....장을 펴주십시오.”

“어느 분이.....절부터.....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복음을 알려줄 때 모든 사람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장과 절을 구분하여 천천히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복음을 봉독하지 않도록 하고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복음을 봉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매 복음을 봉독하고 난 후에 ‘주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선포 말씀은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묵상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성경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세 번씩 외칠 때 기도하면서 외치는 것이 중요하며 중간에는 반드시 침묵을 지키도록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찾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으면 성경본문의 어떤 단어라도 택해서 외치고 묵상합니다.



기도부대 할머니들의 힘

오동녀 세라피나(신안동 본당, 2구역 8반 서기)

저는 신안동 본당 2구역 8반 서기입니다. 소공동체 반장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소책자를 받아들고 와서 읽으며 많은 영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반모임을 통해 ‘삶은 기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열심한 할머니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주님 은총 속에 지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반 구성원 중 90%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입니다. 그분들께서는 말씀나누기 시간과 활동보고 시간이 되면 의례 “나는 활동보다는 기도밖에 못 한다”고 하시지만 예비자를 위해, 병자를 위해, 소외 받는 이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할머니들께서는 얼마 전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마음 아파하는 저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삼우제를 지내고 집에 막 도착하니 이두호 헬레나 할머니님께서 “세라피나야, 밥 안 먹었제? 우리 집에 밥 한 숟갈 뜨고 가라.”라고 전화를 해 주셨어요. “아, 이런 순간이 주님의 손길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하고 연신 외쳤습니다. 제일 힘들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암 수술을 받으시고 1년이 지나 복수가 차고 암세포가 임파선을 통해 전이가 많이 되어 의사 선생님께서 매번 저희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아버지를 위해 선종기도, 자비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미사도 드리고요. 반 모임하시는 할머니님께서 수시로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위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생활 24일 만에 큰 고통 없이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생전에 성당이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보시지는 않으셨지만 어느 날 아버지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이 계심을 믿어보실래요?” “그럼 한번 믿어 보지 뭐.” 자식들 말에 언제나 긍정적이셨던 아버지께서 그날도 흔쾌히 대답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뒷날 수녀님께 대세를 청했습니다. 갑자기 위독한 순간이 다가오자 수녀님께서 단숨에 달려오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대세도 못 받고 돌아가시면 저는 신앙인으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대세 받으시고 일주일 조금 더 사시다가 베드로라는 본명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끔 간호를 하다가 아버지께 “아버지, 하느님께서 ‘오환성 베드로’ 라고 부르시면 ‘네’라고 큰소리로 대답하세요.”라며 세례명이 익숙하지 않아 잊어버리실까봐 수시로 베드로를 상기시켜드렸습니다.

셋째 딸을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셋째 딸이라고 부르시던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셋째 딸 하느님 보시기에 예쁘게 잘 살 거예요.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거든요.’ 장례 3일에서 삼우제까지 너무나 평화롭게 좋은 날씨와 더불어 잘 치렀습니다. 이틀 후에는 봄비가 촉촉이 내려 아버지 산소 잔디에 물을 뿌려주시더군요. 아버지 병원 입원하시기 전부터 시작된 반원들의 열심한 기도 덕분에 모든 일이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계기로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2구역 8반 기도부대 할머니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사목국에서는 소공동체 운영과 관련한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활발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소공동체나,
 소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다양한 사례를 보내어 주세요.
 문의: 055-249-7021~3 메일: mssamok@hanmail.net
 우편: (631-860) 경남 마산시 오동동 107-23번지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김시우(金時佑·알렉시오)

- 이 죄인의 소망이었습니다. -

김길수·사도요한(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을해년(1815년) 늦은 겨울 진보 머루산 산록에는 아직 잔설이 다 녹지 않았다. 밤바람이 못 먹고 못 입은 그들에게는 뺏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다. 김시우(1782 ~ 1815) 알렉시오는 차가운 밤하늘의 영롱한 별빛을 눈물 속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불렀다. “주님! 이 길이 당신을 따르려는 이 죄인의 소망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거두어 주소서.” 반신불수의 불편한 몸에 포승이 옥죄여 고통스러웠고 묶긴 채로 끌려가면서 가끔씩 의식을 잃기도 했다. 종아리에 흐르던 피가 신발 속으로 적시어져 몸을 흐려진 의식으로도 느껴졌다. 불구의 몸에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그는 이렇게 진보 머루산 교우촌에서 포졸에게 잡혀 압송되는 중이었다.

1801년 최초의 전국적 박해가 일어나 지도자는 모두 희생되고 신자들은 철저히 밀고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살아남은 교우들은 수계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산간벽지 심산유곡에 작은 교우촌을 이루고 추위와 굶주림과 맹수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영적기쁨으로 함께 살았다. 아

무도 모르게 숨어 사는 이들 교우촌은 1814년 비참한 기근이 들던 해에 전지수라는 부끄러운 배교자가 경상도 북부의 교우촌 사람들을 등쳐먹고 양식을 구걸하더니 기어코 관아에 밀고하였다.

관아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들이려고 때를 노렸다. 그 해 부활시기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신자들은 부활찬미경을 합송하며 잔잔한 희열 속에 영적 기쁨을 함께하고 있을 때 포졸들이 노리고 횃불을 밝혀 들고 급습해 왔다. 포졸이 신자들을 잡아 떠나려고 할 때 김시우 알렉시오는 포졸에게 울며 호소했다. “이보시오, 포장! 나도 천주교 신자인데 신체장애 때문에 잡아가지 아니하니, 나는 살아도 죽어도 신앙의 형제들과 함께 있기가 소원입니다.” 포장은 두려운 줄도 모르고 나서는 불구자인 김시우를 앞뺨에 보고 끌고 가게 하였다. 김시우는 “주님! 이 길이 당신을 따르려는 이 죄인의 소망이었습니다.”하고 순교의 핏빛 길을 따랐다.

충청도 청양의 양반 출신인 그는 천성이 유순하며 열심히 하는 신앙실천가였다. 신체장애에도 그는 많은 재능이 있었는데 교우들 집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서적을 필사하여 보급시키며 생계를 보조하기도 했다. 김시우는 신문을 받고 상급관청인 대구 영장에게로 보내졌다. 그는 모진 형벌을 감탄할 용기와 인내로 견디어 형리들도 존경하는 눈으로 보았다.

김시우는 감사에게 불려갔는데 감사가 “네가 예수를 흠송한다 했는데 그 예수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매에 맞아 죽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를 흠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죽음이 어찌 훌륭한단 말인가?” 알렉시오가 답했다. “9년 동안 장마가 졌을 때 하우 임금님은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 백성을 구하려했으며 3번이나 궁궐 문 앞을 지나치면서도 들어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를 어찌 훌륭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후세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 칭송합니다. 그러나 하우 임금님은 자기나라 백성을 물질적인 구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고금을 통해 성군으로 칭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계만방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듯 은혜를 베푸신 이를 섬기지 않는 자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께서도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흠송하며 천주교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김시우는 큰 언변을 지녔고 동서고금의 역사와 문학에 통달하여 관아에서 심문 때마다 창조주이신 천주존재, 강생구속, 상선벌악 등 천주교의 주요교리를 열절하게 증언하였다. 감사는 불구의 몸인 김시우 알렉시오에게 번번이 지게 됴을 분하게 여겨 김시우의 입을 몹시 쳐서 턱뼈가 부서지게 하여 말을 못하게 하고 고문을 더욱 심하게 하였다. 김시우는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지만 그 기계와 신앙증거의 열정은 지칠 줄을 몰랐다.

그는 마침내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결안문에 기쁘

게 수결을 놓았다. 이제 사형이 집행될 날을 옥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 그는 불구의 몸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짚신을 삼을 수가 없었다. 형벌로 상처 입은 몸으로 종일토록 짚신을 삼아 바쳐야 그 공전으로 국물밖에 없는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데 김시우 알렉시오는 한 손이 마비된 불구의 몸으로 짚신을 삼지 못했기에 아무런 음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는 형벌과 굶주림으로 쇠약해져 갔다. 18일째 굶었을 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질렀다. 굶주림은 가장 참혹한 현실이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난 후 숨을 거두었다. 그때 그의 나이 서른넷이었으며 동정의 신분이었다. 천주교 신자들은 감탄과 존경심으로 그를 가장 명예로운 증거자의 한사람으로 아직도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

인간은 활동을 통하여 사물과 사회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자기 능력을 기르며
자기를 벗어나 자신을 초월한다.
이같은 성장은 바로 이해한다면
외적 재산의 축적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어떤 인간이냐에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사목 현장)에서

* 소공동체의 크고 작은 활동 역시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향해 자신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